

기아,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 짓는다

기존 공장 있는 북부 누에보레온 주지사 “1조원대 규모 투자” 언급 미 전기차 보조금 기준 충족 모색

기아가 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에 신규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사무엘 가르시아 누에보레온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좋은 소식! 기아가 공장을 확장하고 두 가지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다”고 썼다. 구체적인 생산 모델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가르시아 주지사는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윌리타리차 EV9 전사판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정확한 투자액 역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르시아는 “10억 달러(1조 3,000억원) 규모”로 표

현했다. 2016년 9월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에 몬테레이 공장을 준공해 운영하는 기아는 신규 플랫폼 부지 역시 기존 공장 주변에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335만㎡ 부지 규모 기아 몬테레이 공장에는 프레스, 차체, 도장 등 완성차 생산 설비와 더불어 조립 교육센터와 주행 시험장 등이 갖춰져 있다. 연간 40만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기아 몬테레이 공장은 K3와 프라이드 등 2가지 차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의 산업 수도’라고 불리는 누에보레온주는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 강을 끼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산업단지와 생산공장이 밀집해, 약 2,600개 업체에서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270여 개의 한국 기업도 들어서 있다. 최근에는 ‘니어쇼어링’ (인접국으로 이전) 효과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 역시 지난 2월 누에보레온 몬테레이에 50억 달러(6조 5,800억원) 규모 신규 전기

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동화 전환을 가속해 2030년 전기차 160만대를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기아가 실제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IRA에서 최종 조립을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기아는 가르시아 주지사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철뉴스

광주·전남 수출 넉 달 연속 감소 ‘비상’

광주세관 4월 수출입 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48억1,000만 달러) 대비 16.0% 감소한 40억3,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0억5,300만 달러와 비교해도 20.1%나 빠진 수치다. 올해 들어 1월 8.5%, 2월 13.0%, 3월 11.5% 준 데 이어 넉 달 연속 감소세다.

다만 4월 수입이 32억7,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7억 6,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 수출은 지난해 11월 49억8,900만 달러로 50억 달러 이하로 내려앉은 뒤 4개월 연속 40억 달러대에 머물렀다. 4월말까지 더한 누계 기준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은 12.3%와 11.2%가 준 184억 달러, 159억 달러로 집계됐다. 누계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7% 감소한 14억2,900만 달러, 수입은 38.1% 준 5억 2,700만 달러로 9억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

다. 수송장비(35.7%)가 수출을 견인했으며 반도체(-42.1%), 가전제품(-1.2%), 기계류(-7.7%) 등이 줄었다. 전남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9.1% 감소한 26억1,000만 달러, 수입은 23.9% 줄어든 27억5,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송장비(6,197.9%), 기계류(284.5%)가 수출을 이끌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모두 수송 장비 수출이 그나마 흑자 기조에 보탬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북광주농협은 최근 관내 조합원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북광주농협,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농협광주본부는 북광주농협이 최근 관내 조합원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광주농협 관내 1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합원 시설하우스 명패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경작자, 경작 주소 등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생산자의 이름을 걸고 우수 농산물 생산에 힘써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시설하우스에 자신의 명패를 달게 된 한 조합원은 “시설하우스에 걸려있는 명패를 보니 내 이름을 걸고 생산하는 농산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상봉 조합장은 “앞으로도 북광주농협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 한국광기술원은 최근 한국광기술원에서 ‘선도 국가연구시설(N-Facility)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광기술원 제공

광기술원, 선도 국가연구시설 간담회

소부장 분야 경쟁력 향상 논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와 한국광기술원이 주관한 ‘선도 국가연구시설(N-Facility) 현장 방문 및 간담회’가 최근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렸다. 16일 한국광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가연구시설 11개 기관 연구책임자와 관리·지원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기술원 지능형 광학모듈연구센터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요기반 소부장 분야의 중장기적 R&D 역량 결집 및 세계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경

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은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로서 연구·상용화가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정 11개 연구시설을 일컫는다.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설 지정을 완료한 이후, 국가연구시설은 소부장 분야 세계공급망 재편에 대응, 국내기업에 안정적인 공급역량 확보 및 시제품 생산,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경로의 기업지원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소부장 분야 유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광기술원 지능형광학모듈연구

센터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기의 ‘눈’에 해당하는 광학렌즈 소부장 분야에 특화된 국가연구시설이다. 국가연구시설로 지정된 이후 기업지원 비율을 매년 30% 이상씩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공정·검사, 우주항공(방산), 광학 부품·모듈 관련 광융합 기업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광학렌즈 소부장 분야 국가연구시설을 활용해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적 난제 및 애로사항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LH 광주전남본부, 여수서교 행복주택 입주 시작

LH 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7일부터 여수서교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수서교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 LH와 여수시가 추진했다. 행복주택은 지상 23층 1개 동 규모로 1층 희망상가(16호), 2~4층 주차장, 5~23층 주거공간으로 구성된다. 인근에 서시장이 위치해 발달된 골목상권은 물론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민문화회관, 우체국, 은행, 도서관 등 생활편익시설이 다수 있어 정주여건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통해 대학생·청년은 6년까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까지,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다. 입주자격, 청약절차 및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LH청약센터)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 출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달성 도어·뚜껑형 등 총 70종 순차

삼성전자가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사진> 2017년 처음 출시된 삼성전자 김치플러스는 김치는 물론 곡물,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 김치냉장고의 개념을 다용도 맞춤 냉장고로 바꾸며 시장 트렌드를 주도해왔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제품 27종을 비롯해 3도어 제품 15종, 1도어 제품 11종, 뚜껑형 제품 17종 등 총 70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4도어 신제품 중 총 10개 모델은 에너지 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5월부터 상향 조정된 김치냉장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3도어와 1도어, 뚜껑형을 포함하면 1등급 제품은 총 40개 모델에 달한다.



특히, 최대 용량인 586리터 제품은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10% 더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 절감’ 모델도 선보인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의 ‘AI 절약모드’ 기능을 활용하면 김치냉장고의 컴프레서를 최적으로 제어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의 특징인 차별화된 냉장 기술과 맞춤 보관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신제품은 프리미엄 타이피와 키친핏 타이피로 출시된다. 도어 패널은 총 19가지 종류를 기본 제공하며, 360개 색상상의 ‘프리즘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오픈이노베이션, 수출 경쟁력 혁신 계기로”

무역협회-AI산업융합사업단 2023 광주전남 혁신포럼 개최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16일 광주 AI창업지원센터에서 2023년 광주전남 혁신포럼의 일환으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혁신 역량 배양과 오픈이노베이션 실무 이해를 통한 사업화 기회 확산을 목적으로 매년 혁신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특강은 오픈이노베이션의 수요처인 대·중견기업, 혁신중개자인 공공기관, 공급자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참고할 실무 방법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의 개념 및 글로벌 트렌드,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유형 및 사례,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유형 및 사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실무 케이스 스터디, 오픈이노베이션 성공전략, 실패요인, 노하우, 그리고 시사점 등이 다뤄졌다. 특히 광주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기업 사례를 스터디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및 트렌드 조

사, 분야별 스타트업들과 1대1 미팅을 통해 발굴한 협력의 계기를, 신사업 발굴의 시시점 등 설명이 이뤄졌다. 연사로 나선 한국무역협회 진형석 박사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관은 물론 스타트업도 성공적인 연결이 되기 위한 실무 지식·사전 준비·체크 요소들을 상세하게 챙겨야 한다”며 “대기업도 전담 조직, 실무 노하우를 학습해 오픈이노베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타트업들도 다양한 미팅 참여를 통해 성장의 계기들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내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혁신성장페어 Next Rise 2023, Seoul’ 참여 지역 스타트업 대상으로도 맞춤형 사전·사후 멘토링을 통해 투자유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